

목포시 내년 예산 5894억 편성…복지·보건 집중

올해보다 211억 증액…신규사업은 자체

기초노령연금·자녀양육 등 2266억 투입

목포시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11억원이 늘어난 589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2014년도 일반회계 4927억원, 특별회계 967억원 등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683억원보다 211억원(3.7%)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07억원(4.4%), 특별회계는 4억원(0.5%)이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신축 건물 증가, 지가 상승, 차량 증가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3.1% 늘어난 868억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6억원), 재정보

전금(25억원), 국고보조금(159억원), 보전수입(64억원) 등을 올해 대비 8.8%가 늘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에 비해 4.8% 줄어든 1472억원으로, 74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에는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은 최대한 자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맞췄다.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일반회계 예산의 4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자녀양육수당 등에 무려 226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상하수도·폐기물 등 환경보호분야는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백련 배수펌프장 신설, 남해배수펌프장 증설,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설치 등 331억원(6.7%)을 세웠다.

또 농·수산 및 산업 활성화 분야는 기업 유치 입지 지원,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마리나 항만 조성,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도축

장 이전,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 등 156억원(3.2%)이다.

시는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복지비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체 발행을 억제해 건전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은 오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최되는 제310회 목포시 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 확정된다. 한편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21. 12%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지난 15일 전남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역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전남 4촌 협약식 장면. 사진 좌로부터 김종식 완도군수, 김양수 장성군수, 이명희 장흥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장흥·완도·장성군 ‘4촌 정책협약’

상생 발전·협력 모델 만든다

전남지역 4개 지자체가 정책연합에 나서면서 지방자치 간 새로운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15일 장흥군청 회의실에는 강진·완도·장성·장흥군의 단체장이 모여 정책연합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모인 4개 지자체는 상생발전과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 군수와 기획홍보실장 등 실과장들까지 함께해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만들었다.

협약서에는 전남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명시하고 정책교류와 공동 위크숍, 관광상품 개발 등 업무협력 확대를 담았다.

또 연계협력사업 공동발굴추진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장흥=김용기자·중부취재본부장

순천만 겨울철새 흑두루미 보호 총력전

시, 무논습지 조성·철새지킴이단 운영 등 만전

순천시가 순천만의 대표 겨울철새인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 보호에 밤 빛고 나섰다.

순천만에는 현재까지 흑두루미 663마리를 비롯한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겨울철새가 도래하여 월동준비를 시작했다.

이에 순천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철새의 안정적인 활동환경 조성을 위해 무논습지 조성, 벽진존치, 차량불빛 차단을 타리 설치, 철새지킴이단 운영, 철새 먹이주기 등 철새 보호정책

을 접목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흑두루미를 포함한 주요 겨울철새 이동시기가 예년에 비해 빨라짐에 따라 추수가 끝난 논에 물을 채워 무는 습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또 도로변에 갈대울타리를 세워 차량 불빛으로부터 철새의 잡자리를 보호하고 철새 서식지로 통하는 농로 곳곳에 철새지킴이 요원을 배치, 차량과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순천=김은증기자 ejkim@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기공식

연륙교 임자대교 기공식 지난 14일 임자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임자도와 지도를 잇는 연륙교인 임자대교 기공식이 열렸다. 임자대교는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원료해 놓고도 그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임자대교 연장은 4.99km로, 소요사업비는 1760억원이다. 준공은 오는 2020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신안군 제공〉

관광객 1만명 기차 더 태우기

코레일 전남본부, 연말까지 전직원 참여

코레일 전남본부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17일 코레일 전남본부는 “지난 12일 관광비수기인 연말까지 두 달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광객 ‘1만명 기차 더 태우기’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1만명 더 태우기 운동은 ‘함께 해요 지역사랑, 동참해요, 기차타기’

라는 표어로 순천만(정원박람회), 여수엑스포공원(박람회장), 지리산, 보성다원, 섬진강기차마을, 여수 다도해 등 지역관광자원을 코레일 직원들의 입과 손을 통해 전국에 홍보하게 된다.

앞서 코레일 전남본부는 지난 8일 고객 서비스 최전방에 있는 순천역 등 전남본부 역장 13명이 함께 ‘영업 수입달성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운

동에 힘을 보탰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 까지 모두 333만명을 수송해 지역 중요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내일로 티켓’은 3년 연속 전국 판매 1위를 달성했다.

한광덕 본부장은 “서울 등 수도권의 활발한 현지 마케팅으로 우리 남도의 우수한 관광 자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운동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에너지 절감 운동 등으로 친환경 녹색철도를 구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신안 흑산 진리 등 7곳

어린 전복 54만미 방류

신안군은 17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일 흑산면 진리 외 6개 자선에 어린 전복 54만미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할 전복은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양성된 약 4cm 이상의 건강한 전복으로, 해양수산과학원의 질병검사 등 사업지침에 따라 적합 여부가 확인된 종묘다. 전복은 수심 5~50m의 깨끗한 바다에 서식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제32회 성가대합창제

32nd Choirs Festival

공연순서



담임목사 서한국
광주남부교회
(힐렐루야 성가대)



담임목사 박요섭
천단중앙교회
(힐렐루야 성가대)



담임목사 임석명
광주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



담임목사 임춘수
광주산수교회
(연합 친양대)



담임목사 허태호
새희망교회
(힐렐루야 성가대)



담임목사 한기승
광주신일교회
(힐렐루야 성가대)



지휘자 이현숙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 IEEE 코이어

2013. 11. 19(화)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CBS

광주CBS 52주년
1961-2013

초대권은 당일 입장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경품추첨 :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LCD TV, 압력밥솥등 가전제품을 드립니다